정교회주보

제2447호

2023.11.1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끼니구의 성 요한 수도원은 고도 340m의 이미토스산 능선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테네와 지중해를 향한 탁 트인 전망을 갖추고 있다. 수도원에 대한 역사적 정보는 보존되지 않았다. 10세기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921년에 수도원 전체 지역이 비잔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성당은 두 개의 대리석 기둥이 지지하는 팔각형 돔이 있는 십자가 형태로 지어졌다.

루가 제9주일
오바디아 예언자
성 발람 순교자
성 일리오도로스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예언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 사도경 : 에페소 2,14~22 ····(봉)318
- 복음경 : 루가 12,16~21 ·····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온 마음을 다해 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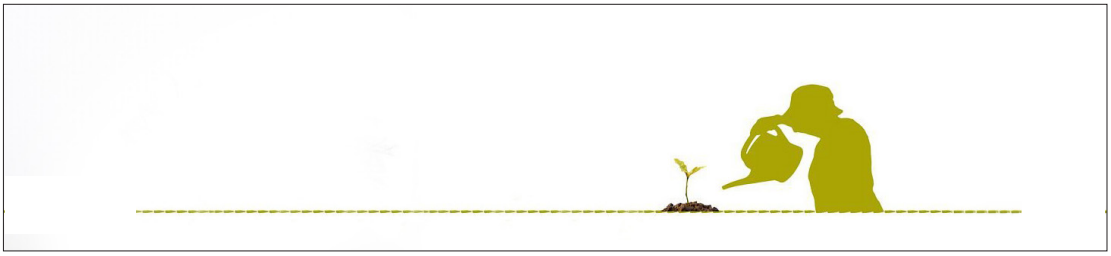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언급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행복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릴 때만 하느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강렬한 의지로써 언제나 꾸준히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입문할 때 배운 내용이나 성서에서 읽은 내용, 또는 설교로 들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모든 성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행동'과 '실천'이었습니다. 성인들은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목적이 단순히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사도행전 2,37) 즉, "이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라고 하거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한 젊은이는 사막에서 수행하던 원로 수도사를 찾아가 "스승님, 제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론을 배우기 위해 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복음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은, 수업이나 강의를 통해 하듯이 우리가 몰랐던 어떤 내용을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찬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듯,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인들의 삶이 담긴 성인전을 읽는 것은 그분들의 생애를 세세하게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복음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정교회 가르침의 이론적 지식만 쌓아가는 데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배운 지식은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이론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치, 노동법에 관한 모든 법 조항을 암기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던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가 11,27-28)

이사야 5장 20절에 대한 숙고

제레미 B.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이사야 5,20)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한 신념으로써 우리 사회를 해체하려고 시도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거듭함에 따라 나 자신이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많은 경우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써 악과 선을 왜곡시켰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악으로 기우는 인간적인 욕망과 격정이 하느님 은총의 빛을 대신하여 내 마음을 어둡게 하였는지요! 증오나 원한으로 인해 기도의 감미로움은 몰아내고 그 대신 나의 정신 속에서 악화된 말다툼과 성난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사납게 요동치는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기에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를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만일 우리 안의 빛이 어둠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 봅시다."(루가 11,35 참조) 우리가 정념(情念, 악으로 기우는 모든 인간적 욕망과 격정)에 대항하는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의 빛은 약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 내면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위의 어둠과 씁쓸함을 그저 증폭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이때는 회개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대 바실리오스 성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선행을 행하는 이들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굳게 하시고, 당신의 은덕으로 악을 선으로 만드소서."(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교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도'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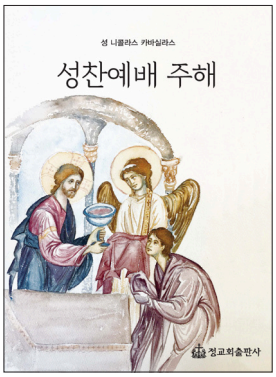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하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회개와 평화와 내적 성찰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간 예배 안내

* 11월 21일(화)
  성모 입당 축일
* 11월 25일(토)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신간 소개



성찬예배 주해 | 성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지음 |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요한 박용범 옮김 | 정교회출판사 | 208쪽 | 15,000원

소 식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

첫째, 전쟁이 즉각 중단되고 대화가 시작되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둘째, 양측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즉각 석방되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셋째, 전쟁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특히 전쟁 지지자들의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시다.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13일(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집전한 성찬예배 중에 안드레아스 하말리스 & 엘레니 조혜원 부부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느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성인의 가르침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시리아의 에프렘 성인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수도자의 삶을 갈망할 때 그들을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라고 영적 아버지들에게 조언했다.

"그들이 수도자로서 고행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면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지 말게나. 주님께서도 11시에 온 일꾼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